

고려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 및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의 분석에 관한 연구

The Analysis of Classification Systems of *Chojo Tripitaka Koreana* and *Chojo Print* Held by Horim Museum

김 성 수(Sung-Soo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의
내용 및 분석 |
| II. 초조대장경 인본의 특징 및 의의 | |
| III. 초조대장경 분류체계의 추정 | V. 결론 |

초 록

이 논문은 고려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대장경의 인본(초조본)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6개 사항의 초조본의 특징 및 의의를 도출하였다. 둘째,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대장목록」에 기반하여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셋째,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 10종 21권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초조본들이 각각 입장(入藏)되는 함차명(函次名)들이 「대장목록」의 그것들과 거의 동일함을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제3장에서 수립한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가 합당함을 입증하였다. 넷째,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조본 「화엄경」 중 이른바 「50권 화엄경」이 5권이냐 존재함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재조대장경에서는 이 「50권 화엄경」의 자리(위치)에 「60권 화엄경」이 강제로 입장되었음을 밝혔다.

주제어: 고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대장목록」(재조대장경의 목록), 「50권 화엄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hojo Tripitaka Koreana*, and analyze the contents of its print held by Horim Museum. Major discussions included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Chojo Tripitaka Koreana* are examined. Second, based on *Taejang Mongnok*, which is the Bibliography of *Tripitaka Koreana*,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hojo Tripitaka Koreana* is established. Third, by closely examining 10 titles and 21 volumes of *Chojo Print* from the collection of Horim Museum, it is proved that its contents and sequences in scriptures of *Chojo Print* are the same as those of *Taejang Mongnok* and therefore the classification system in this research is adequately established. Fourth, it is found that in the *Avatamska Sutra* held by Horim Museum, five volumes of the *Avatamska Sutra* which originally consists of fifty volumes, are included. And it is also found that in *Chaejo Tripitaka Koreana*, the *Avatamska Sutra*, which consists of sixty volumes, were inserted in their place.

Key Words: *Chojo Tripitaka Koreana*, *Taejang Mongnok* *Chaejo Tripitaka Koreana*, *Avatamska Sutra*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정보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muyokss@hanmail.net)
• 접수일: 2006년 2월 28일 • 최초심사일: 2006년 3월 8일 • 최종심사일: 2006년 3월 10일

I. 서론

고려시대 11세기에 완성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1011-1087)은 간본(刊本)대장경으로써 중국 송조(宋朝)에 이루어진 개보칙판대장경(開寶勅板大藏經: 971-983)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착수되었으며, '그 수록범위가 당시까지 개판(開板)된 한역(漢譯)장경으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대장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하여야 할 대장경'¹⁾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경의 판본은 1232년(高宗 19: 壬辰)에 몽고의 병란(兵亂)으로 불타 없어지고²⁾ 현재 그 인본(印本)들이 국내 <호림박물관>³⁾을 비롯한 16개처⁴⁾ 및 일본 <남선사(南禪寺)> 등에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에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초조대장경의 DB구축 및 조사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호림박물관>을 비롯한 국내 및 일본에 산재하는 '초조대장경의 인본(이하 '초조본'으로 약칭함)'을 수합하여 디지털화 하면서, 「高麗初雕大藏經集成」 제1-4권을 1차로 발간한 바 있다.⁵⁾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기록유산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초조대장경에 대한 주제서지학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연구 과제 및 그 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연구와 초조대장경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자료들⁷⁾을 기반으로

-
- 1) 千惠鳳,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대장경] 概說,"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調查研究 (서울: 成保文化財團, 1988), 13 參照.
 - 2) 「高麗史」高宗38年 9月 壬午條.
 - 3) <호림박물관>은 현재 우리나라에 산재된 초조대장경 중 약 88권을 소장하고 있어서, 초조대장경의 국내 최대 소장 박물관임.
 - 4)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pp.129-137.
 - 5) 高麗初雕大藏經編纂委員會, 「高麗初雕大藏經集成 1-4」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 6) 金聖洙, "고려 초조대장경의 연구 과제," 書誌學研究, 第32輯(2005. 12), pp.35-60.
이 연구에서는 차후 고려 초조대장경의 연구과제로써, 1) 초조대장경의 조조 배경 및 성립, 2) 초조대장경의 구성, 3) 초조대장경의 주제서지적 연구과제 - ① 초조대장경의 조조 단계, ② '國前本'과 '國後本'의 규명 문제, ③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函次의 차이 및 각 경권 卷數의 異同 문제, ④ 고려 '초조대장목록'의 복원과 관련한 문제, ⑤ 變相圖의 차이 및 변화 문제 등이 연구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 7) 초조대장경 등과 관련한 기존의 주요 연구 현황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의 연구 과제," 書誌學研究, 第32輯(2005. 12), 35-60.
 - ② 고려초조대장경편찬위원회, 「高麗初雕大藏經集成」 1-4.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 ③ 류부현, "晉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28집(2004. 9.), pp.179-194.
 - ④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고인쇄박물관, 2002).
 - ⑤ 강순애, "舊大藏目錄 杜函-楚函까지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2집(1996), pp.115-170.
강순애,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1집(1995), pp.75-166.
강순애,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分析을 통해 본 初雕 및 再雕大藏經의 變容에 관한 研究," 한국비블리아, 제7집(1994), pp.103-146.
 - ⑥ 千惠鳳, "高麗初雕大藏經," 高麗大藏經 研究資料集 II (경남 합천군: 해인사, 2533 (1989)), pp.9-24.
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高麗大藏經 研究資料集 II (경남 합천군: 해인사, 2533(1989)), pp.25-78.
 - ⑦ 鄭駟謨,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調查研究 (서울: 成保文化財團, 1988).
 - ⑧ 鄭駟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제2집(1987), pp.3-108.

하고, 위 『초조대장경의 DB구축 및 조사 연구』 프로젝트에서 형태서지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남권희 교수의 조사사항을 토대로 하여,⁸⁾ 〈호림박물관〉 소장의 초조본 중 「고려초조대장경집성, 제1권에 수록된 자료 중 '10종 21권'⁹⁾에 국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大藏目錄」의 분류체계에 입각한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의 파악 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향후 “고려 초조대장경의 주체서지적 통합연구” 및 “「고려 초조대장목록」의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로 삼고자 한다.

II. 초조대장경 인본의 특징 및 의의

고려 초조대장경의 개요 및 전반적인 사항은 기존의 선행연구¹⁰⁾로 돌리고, 본 장에서는 본 연구 제3-5장의 본론 전개를 위한 전제 단계로서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과 초조대장경의 특징 및 의의에 국한하여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자 한다.

첫째, 초조본의 판식(版式)은 일반적으로 첫 장(張) 22행 14자, 그 이하의 장은 23행14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초조본 각 장의 일반적인 크기는 세로길이(紙高) 26-29cm, 가로길이(紙幅) 45-47cm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¹¹⁾

둘째, 초조본 책장의 앞 또는 뒤(의 가장자리)¹²⁾에 판제(板題)와 권차(卷次) 및 장차(丈次: 張次)와 함차명(函次名)이 소자(小字)로 표시된 것¹³⁾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판목(板木)에서 각각 인쇄한 후, 권자본을 제본하기 위하여 각 장을 이어붙일 때의 편의성과 식별을 위하여 판각 당시 판목에 미리 새겨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권자본의 제본시, 본문의 연계성을 위하여, 각 장을 정교하게 이어붙인 경우에는 이 사항이 이어 붙이는 속 면으로 들어가게 두 장의

정필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정필모, “高麗四大藏經板의 顛末,” 書誌學研究, 제10집(1994), pp.31-44.

⑧ 吳龍燮,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研究,” 書誌學研究, 創刊號(1986), pp.213-250.

⑨ 김성수, “「대장목록」과 「축쇄장목록」·「만자장목록」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창간호(1986), pp.105-128.

⑩ 李箕永, “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제48 (서울: 東國大學校 譯經院, 1976), pp.1-17.

8) 남권희 교수의 『초조대장경의 DB구축 및 조사 연구』 프로젝트 형태서지조사에 대한 상세사항은 향후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단행본 형태로 출간될 예정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미간행 상태의 DB를 제공하여 준 남권희 교수께 감사를 표한다.

9) 제4장의 〈표 1〉 참조.

10) 주7)의 註文 여러 서지사항 참조.

11) 그러나 초조본의 「진본(晉本) 화엄경(50권 화엄경)」의 경우, 각 권의 첫 장은 24행 14자, 그 이하의 장은 25행14자를 이루고 있는 예외적 사항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초조본 각 장의 종이크기 또한 그 세로길이(紙高)는 위의 사항과 비슷하나, 그 가로길이(紙幅)는 49.9-51.1cm 등으로 그 가로의 폭이 좀더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12) 이 부분은 필자가 보충한 것임.

13)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pp.127-128.

연결부분을 중첩·함몰되도록 이어붙임으로써,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¹⁴⁾

셋째, 초조본의 경우 간기(刊記)가 생략되어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이는 현종(1009-1031) 당시에 초조대장경을 1차사업으로 판각할 때 이미 그 이후에 보유판을 계속 간행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 2차사업인 문종(1046-1083) 당시(1063년 이후 거란대장경 참조 판각시기) 및 그 3차사업인 1083-1087년(文宗37-宣宗4)의 송신역경전(宋新譯經典)의 판각사업이 완료됨으로써, 3차에 걸친 초조대장경의 판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¹⁵⁾ 간기가 생략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형식의 판본으로 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재조본의 경우 권미제(卷尾題) 다음에 '○○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기록이 있거나 해당 목판의 간기가 새겨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넷째, 초조대장경은 1)복송 개보칙판대장경, 2)거란대장경, 3)정원입장제경론(貞元入藏諸經論), 4)송의 신역경론 및 5)국내 전본(傳本) 등을 활용하여 판각하였다. 그 개판(開板)에 있어서는 복송 개보칙판의 매행(每行) 14자 형식에 기초하여 판하본을 마련하여 새기거나 번각하였으며, 그 판각기법이 아주 정교하고 자체(字體)가 정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⁶⁾

다섯째, 현재 <호림박물관> 소장의 「진본(晉本) 화엄경(50권 화엄경)」 등¹⁷⁾에는 초조본이 아닌 목서 또는 재조본에 의한 초조본 형식의 복제면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초조본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재까지 <고려대장경연구소>와 남권희 교수의 국내의 초조대장경의 소재(所在)에 관한 사전(事前)조사에 의하면, 일본 남선사에 약 1,800종(권), 일본 석산사(石山寺) 등에 약 300종, 그리고 국내의 각 도서관·박물관 및 개인소장 등으로 산재하여 있는 것이 약 350종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외에 산재한 초조대장경의 인본은 도합 2,450종(권) 정도가 파악된 셈이다. 이제 이들 초조본을 모두 수합하여 디지털화 한다면 이른바 '디지털초조대장경의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과 동시에 이에 입각하여 실증에 의한 「초조대장목록」의 완성이 가능하고, 우리 민족사에서 잃어버린 '초조대장경'이라는 세계적인 기록유산을 바로 오늘의 현재 시점에 다시 살려낼 수 있으며, 11세기 초조대장경의 판각 당시와 가장 근접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14) 그러나 <명지대학교박물관> 소장의 「瑜伽師地論」 卷第十七 등의 경우, 권자본의 체본시 각 장을 어어 붙일 때, 小字로 표시된 위의 板題·卷次·丈次(張次)·函次名이 각 장의 첫머리에 나타나도록 이어붙임으로써, 권자본의 완성 후에도 이 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려초조대장경집성 편찬위원회,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pp.17-25. 참조 요).

15) 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의 연구과제," pp.39-42. 참조.

16)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p.128.

17) 고려초조대장경집성편찬위원회,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p.217上, 227上, 236上, 242, 243上 등.

18) 이는, 초조본이 <호림박물관>에 소장되기 이전에 누군가에 의하여 해당 권차(卷次)의 시작 부분이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초조대장경 분류체계의 추정

본 장에서는 초조대장경의 목록 즉 「초조대장목록」¹⁹⁾을 장차 실증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전제조건 및 그 기반으로써,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가 어떠하였던가를 추정(推定)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에 입각한 초조대장경의 큰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올바른 「초조대장목록」의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를 고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대장목록」의 분류체계를 관찰하고, 이를 중국대장경의 입장목록(入藏目錄)인 「開元釋教錄(730)」²⁰⁾의 분류체계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다.²¹⁾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대장목록」의 분류체계는 천자문의 순서에 입각한 '함차명(函次名)의 안배(按排)에 의한 분류'²²⁾법을 그 근간(根幹: 基礎單位)하고 있음을 일견(一見)하여 보아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장경의 목록에 함차명을 부여하는 방식은, 중국 당(唐) 지승(智昇)이 찬술한 「開元釋教錄略出」²³⁾에서 기인(起因)하는 것이다. 「개원석교록약출」은 「개원석교록」 중에서 입장록인 제19 및 20권에 기입된 각 불전(佛典)에 대하여 천자문의 순서로 함차명을 안배하여 편정(編定)한 것이다.²⁴⁾ 따라서 「대장목록」 또한 「개원석교록약출」의 함차순 및 그 분류체계를 가능

19) 왜냐하면,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大藏目錄」이 재조대장경 마지막 函인 '銅函(동함: 제639함)'에 위치하지 않고, 그 제571함인 '更函(경함)'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재 학계에서는 이 경함의 위치에 이른바 「초조대장목록」이 편입되었으리라고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개원석교록」은 730년에 지승이 편찬한, 당시까지의 가장 포괄적으로 집성된 대장경목록이라 할 수 있다.

21)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정의 논술은 선행연구로 돌리고, 지면의 절약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한다.

22)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의 분류는 KDC·DDC·LC 할 것 없이 모두 분류번호(기호) 및 저자기호(또는 년대순기호)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된 번호(기호)에 의하여, 해당 주제의 자료를 특정한 書架의 어떤 위치에 자리 잡도록 배려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분류가 이와 같이 해당 자료의 서가 배열(排列)을 염두에 두는 바와 같이, 대장경의 함차명 분류의 방법 또한 현대 서가의 개념과 유사한 그 당시의 각 函에 해당 자료를 가장 적합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이른바 按排(按配)의 방안이라 볼 수 있다.

23) 중국 刊經大藏經(인쇄본대장경 또는 목판대장경)의 효시(嚆矢)인 개보척판대장경(971-983)의 준거목록, 〈축쇄장연기〉에 의하면, “沙門 智昇이 지은 「開元釋教錄」 20권 경·율·론과 여러 승려의 저서 등 5,048권의 저서를 적고 千字文 글자로 차례를 정하니, 이것이 대장경의 수효를 정한 것의 처음이다” 하였다. 따라서 「개원석교록」에서 지승이 천자문의 함차순으로 입장한 사례를 北宋棺板大藏經에서 수용함으로써, 이것이 곧 목판대장경의 함차순 분류 및 入藏의 모범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4) 「개원석교록약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 등 大帙의 불전을 각 함에 입장할 때에는 어김없이 10권씩 끊어서 이를 한 단위로 하여 1함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하여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은 천자문의 제1함인 '天(천)'함에서 시작하여 제60함인 '柰(내)'함에서 그 入藏(입장)이 끝나는 특징을 보인다.

한 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그리하여 「대장목록」 분류체계의 원류는 바로 「개원석교록 약출」이라 할 수 있다.

초조대장경의 목록은 현존하지 않지만, 초조대장경의 인쇄본에서 나타나는 함차명 등의 상황이 재조대장경과 유사(類似)함으로, 본고에서는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대장목록」에 기반하여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장목록」에서는 ‘대승경율론’과 ‘소승경율론’ 그리고 ‘성현집전’ 및 ‘[보유]’의 4개 부분으로 구분하여,²⁶⁾ 이를 현대분류법의 類와 같은 개념으로 삼아서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승경율론類에서는 삼장(三藏)인 ‘경·율·론’으로 3구분하여 그 綱의 개념으로 분류하였으며, 소승경율론類에서도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구분하여 綱의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성현집전類에서는 ‘범본번역’과 ‘중국찬술’로 2구분하여 그 綱의 개념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개원석교록」이 편찬된 당(唐) 시대가 지난 후 송(宋) 시대에 새로 번역(新譯)된 불전들을 수합한 ‘보유’類에서는 1) ‘송신역경전 등’의 부분(群)과 2) 「속정원석교록」, 소수(所收)의 경전 등’의 부분(群) 및 3) 재조대장경의 조조(雕造) 때에 초조대장경에 편입되지 않았던 송신역경전 부분으로 3구분함으로써, 모두 11개 부분을 그 綱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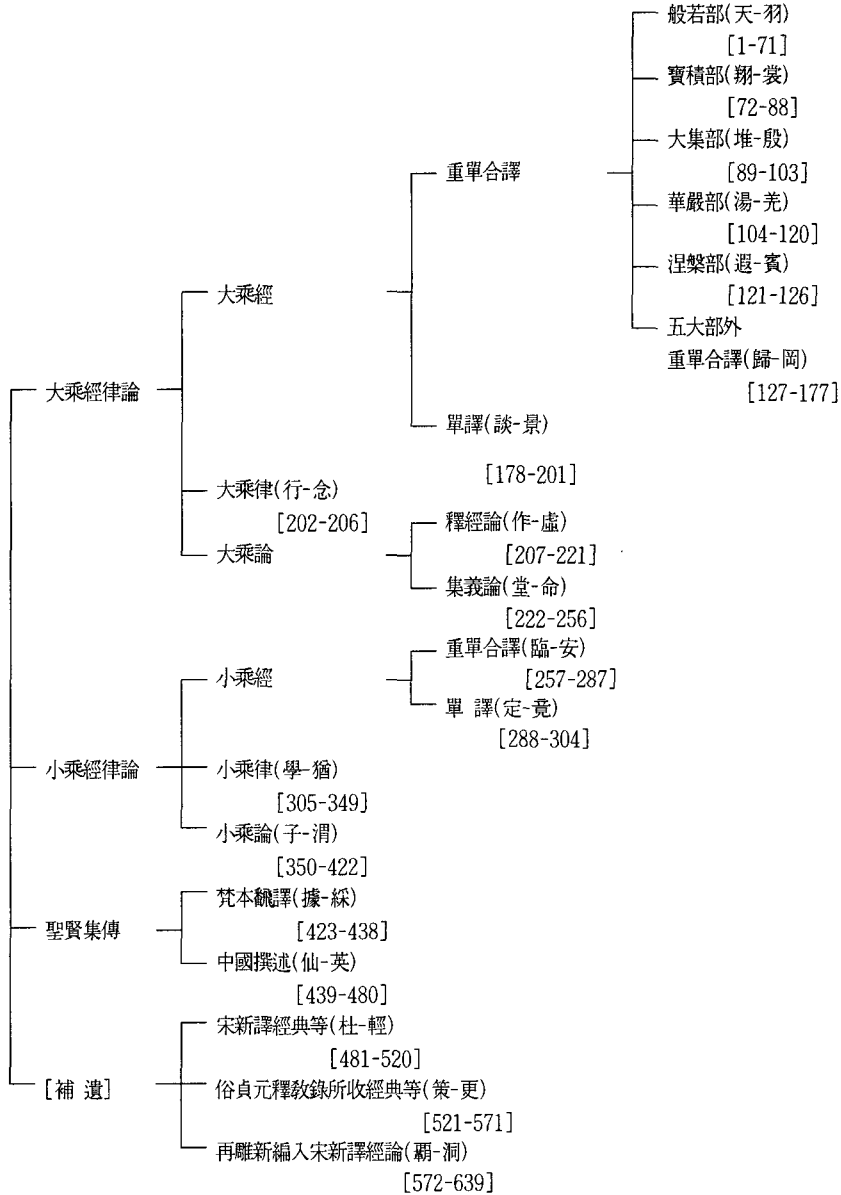
그 다음,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승경’과 ‘소승경’의 경우에는 각 경전의 번역에 있어서 중단합역(重單合譯) 부분과 단역(單譯) 부분으로 2구분하여 이를 目的의 개념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승경’의 ‘중단합역’ 아래에서는 ‘반야부’부터 ‘화엄부·열반부’ 등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5대부(大部)를 세구분하여 천자문 순서의 각 함차(函次)로 가장 먼저 안배(按排: 按配)하고, 그리고 ‘오대부 외 중단합역’ 부분을 ‘오대부’에 밀접하게 배치하고 각 경전들을 세구분하면서 분류하기 위해서는, 5대부를 함차순에서 가장 먼저 배치하기 위한 細目 배열(按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승경’과 ‘소승경’에서는 ‘중단합역’과 ‘단역’을 그 目的의 개념으로 설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밖에 ‘대승론’의 綱에서는 경전을 해석한 論의 부분인 ‘석경론’과 각 경전의 의미를 풀이한 논서(論書)류를 집성한 ‘집의론’으로 2구분하여 그 目的의 개념으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25) 김성수, “「대장목록」과 「속쇄장목록」·「만자장목록」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창간호(1986), pp.105-128. 참조.

26) 위 ‘대승경율론’ 등 작은 따옴표 속의 용어는 「개원석교록」 권제19-20(入藏錄)에서 그 편찬자인 智昇이 직접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도 1〉 「대장목록」의 분류체계²⁷⁾



* 각 綱目 뒤 () 속에 기입된 漢字는千字文 순서의 해당 函次名의 표시임.

** 천자문 漢字 아래의 [] 속에 기입된 아라비아 數字는 천자문순의 漢字 函次名을 아라비아 수자의 합차번호로 전환한 數字임.

27) 출처: 김성수, “「대장목록」과 「축쇄장목록」·「만자장목록」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장간호(1986), p.108. 위 도표의 분류체계는, 聖賢集傳의 中國撰述에 이르기까지는 「開元釋教錄略出」에 근거하여 그 函別로 주제를 분석하여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으며, 補遺류는 그 내용별로 구분하였음을 밝혀둠.

따라서 「대장목록」에서는 ‘대승경율론’과 ‘소승경’의 綱에서 모두 6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目的 개념으로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승경綱의 중단합역目的 아래에 5대부를 각각 細目으로 하고, 여기에 5대부의 중단합역目的을 인접시키는 방법으로써의 6細目으로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세목을 비롯한 각 綱 등의 ‘같은 분류체계 안에서는 동일한 번역자의 불전을 한 곳으로 모으는 편집을 하였음’²⁸⁾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대장목록」에서는 재조대장경의 전체 불전을 분류함에 있어서 ‘대승경율론’ 등의 4類와, ‘대승경’ 등의 11綱, 그리고 ‘대승경’ 아래에서의 ‘중단합역’ 등의 6目を 비롯하여,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반야부’ 등의 6細目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²⁹⁾

초조대장경 각 불전의 인쇄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p.15 <도 2> 참조), 각 권의 첫 행에 서명과 권수(卷次)를 기입하고 어느 정도의 공백을 두면서 그 하단(下段)에 함차명(函次名)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초조대장경 또한 함차순 분류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사되었거나 연구된 초조대장경의 인본들에 대한 여러 사항들’³⁰⁾을 일괄하여 대조하여 보면,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각 불전에 대한 함차별 편입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는 부분 외 나머지의 대부분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함을 알 수 있다.³¹⁾

그리하여 <도 1>에서 재조대장경의 조조 때에 새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재조신편입송신역경론(羈-洞)’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일단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 1>에서 ‘재조신편입송신역경론(羈-洞)’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 즉 ‘대승경율론’의 ‘반야부’의 ‘天’함(제1함)에서부터 ‘보유’의 ‘속정원석교록소수경전’의 ‘更(경)’함(제571함)까지의 분류체계를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로 잠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조대장경의 분류체계에 의한 가상의 분류체계를 일단 설정하여 놓고, ‘이것이 재조대장경의 분류체계와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하는 비교·분석의 틀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

28) 진현중, 환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서울: 들녘, 1997), p.39.

29) 김성수, “「대장목록」과 「축쇄장목록」·「만자장목록」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창간호(1986), pp.108.

30) ①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0), pp.62-66.

②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pp.129-137.

③ 고려초조대장경집성 편찬위원회,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4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④ 강순애,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1집(1995), pp.75-166. 등.

31)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편입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 장인 제4장에서 논술될 내용이지만, 초조대장경에서는 이른바 「50권 화엄경」이 편입되어 있지만 재조대장경에서는 「60권 화엄경」이 대치되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실제 초조대장경의 실증적인 조사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파악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증은 차후의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문이다.

요컨대,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는, 초조대장경의 전체 불전을 분류함에 있어서 '대승경율론' 등의 4類와, '대승경' 등의 10綱 및 '대승경의 중단합역' 등의 6目, 그리고 '반야부' 등의 6細目으로 분류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볼 때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는 4류 10강 6목 6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V.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의 내용 및 분석

본 장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대장경본(初雕本) 중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에 수록된 10종 21권에 국한하여,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정리하여 먼저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대장경의 서지사항³²⁾

일련번호) 書名 卷次 譯者事項: 000 譯. 函名: 000. 형태: 000. 張數: 00張. 紙質: 0紙. 板首題: 000, 再雕本(卷尾의 판수제); '000 및 函名' -再雕本의 총권수, 千字文函次名(아라비아 數字순 函數). -初雕本의 총권수, 千字文 函次名(아라비아순 函數) (*[]안은 필자 추정)

- 1) 開元釋教錄 卷第八.³³⁾ 譯者事項: 唐 智昇 譯. 函名: 陞(제457함). 形態: 卷子本. 張數: 35張. 紙質: 楮紙.³⁴⁾ 板首題: 初雕本에는 보이지 않음, 再雕本: '開元釋教錄 卷第八 第二張 陞' -再雕: 20권, 笙, 陞(제456-457함).
- 2) 經律異相 卷第六.³⁵⁾ 譯者事項: 梁 僧旻·寶唱 等集. 函名: 仙(제439함). 形態: 卷子本. 張數: 35張. 板首題: 初雕本에는 보이지 않음, 再雕本: 仙函. -재조: 50권, 仙-傍(제439-443함, 5함 중 제1함)
- 3) 廣弘明集 卷第二十一.³⁶⁾ 譯者事項: 唐 道宣 撰. 函名: 聚(제478함). 形態: 卷子本. 張數: 27張. 板首題: 初雕本에는 보이지 않음, 再雕本: '廣弘明集 卷第二十一 第二張 聚' -재조: 30권, 典, 亦, 聚, 群(제476-479함)
- 4-1) 根本薩婆多部律攝 卷第一.³⁷⁾ 譯者事項: 勝友 集; 唐 義淨 譯. 函名: 奉(제342함). 形態: 卷子本. 張數: 26張. 紙質: 楮紙.³⁸⁾ 板首題: '根本薩婆多部律攝 卷第一 第二丈 奉', 再雕本: '根本薩婆多部律攝 卷第一 第二張 奉'³⁹⁾ -再雕: 14권, 奉/1-7권, 母/8-14권(제342-343함)

32) 이 표는, 남권희 교수가 『초조대장경의 DB구축 및 조사 연구』 프로젝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초조대장경의 형태서지사항의 DB에서 제시된 각 불전의 서지사항 중에서, 초조대장경의 주제서지적 논술을 위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33)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89-100.

34) 第1張부터 第15張까지 脫落된 상태임.

35)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101-112.

36)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113-122.

37)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123-131.

38) 본문에 사용된 紙質은 厚白楮紙.

39) 초조본과는 張次表示에 '丈'을 '張'으로 표기한 차이점이 있다.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1호)

- 4-2) 根本薩婆多部律攝 卷第十一.⁴⁰⁾ 譯者事項: 唐 義淨 譯. 函名: 母(제343합). 形態: 卷子本. 張數: 24張. 紙質: 楮紙.⁴¹⁾ 板首題: '根本薩婆多部律攝 卷第十一 第二丈 母'. 再雕本: '根本薩婆多部律攝 卷第十一 第二張 母'. -재조: 14권, 奉/1-7권, 母/8-14권(제342-343합)
- 5)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卷第四十九.⁴²⁾ 譯者事項: 唐 義淨 譯. 函名: 益(제319합). 形態: 卷子本. 張數: 28張. 紙質: 楮紙(2種). 板首題: '一切有部毗奈耶 卷第四十九 第二丈 益'. 再雕本은 '一切有部毗奈耶 卷第四十九 第二張 益'. -재조: 50권, 甘, 棠, 去, 而, 益(315-319합)
- 6-1)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卷第二十三.⁴³⁾ 譯者事項: 唐 義淨 譯. 函名: 賤(제324합). 形態: 卷子本. 張數: 24張. 紙質: 楮紙.⁴⁴⁾ 板首題: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卷第二十三 第二丈 賤'. 再雕本은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卷第二十三 第二張 賤'. -재조: 40권, 殊, 貴, 賤, 禮(제322-325합)
- 6-2)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卷第三十三.⁴⁵⁾ 譯者事項: 唐 義淨 譯. 函名: 禮(제325합). 形態: 卷子本. 張數: 18張. 紙質: 楮紙. 板首題: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卷第三十三 第二丈 禮'. 再雕本은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卷第三十三 第二張 禮'. -재조: 40권, 殊, 貴, 賤, 禮(제322-325합)
- 7) 金剛般若論 卷下.⁴⁶⁾ 譯者事項: 隨 達磨笈多 譯. 函名: 傳(제219합). 形態: 卷子本. 張數: 21張. 紙質: 楮紙.⁴⁷⁾ 板首題: 金剛般若論 卷下 第三丈 傳. (再雕: 傳). -재조: 2권(상, 하), 傳(佛地經論, 金剛般若論, 能斷金剛般若바라밀다經論頌 3종 1합)
- 8) 大般若波羅蜜多經 卷第四百八十一.⁴⁸⁾ 譯者事項: 唐 玄奘 譯. 函名: 劍(제49합). 形態: 卷子本. 張數: 22張. 紙質: 楮紙(16張과 18張의 紙質은 薄楮紙). 板首題: 보이지 않음. (再雕: 劍) -재조: 600권, 天-奈(제1-60합).
- 9-1) 大般涅槃經 卷第三十七.⁴⁹⁾ 譯者事項: 北凉 曇無讖 譯. 函名: 體(제124합). 形態: 卷子本. 張數: 25張. 紙質: 楮紙.⁵⁰⁾ 板首題: '涅槃經 卷第三十七 第三張 體'. (再雕: 體) -재조: 40권, 遐, 邇, 壹, 體(제121-124합)
- 9-2) 大般涅槃經 卷第三十八.⁵¹⁾ 譯者事項: 北凉 曇無讖 譯. 函名: 體(제124합). 形態: 卷子本. 張數: 20張. 紙質: 楮紙. 板首題: '涅槃經 卷第三十八 第二丈 體'. (再雕: 體) -재조: 40권, 遐, 邇, 壹, 體(제121-124합)
- 10-1)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一.⁵²⁾ 譯者事項: 東晋 佛跋跋陀羅 譯. [50권 화엄경]. 函名: 湯(제104합). 形態: 卷子本. 張數: 26張. 紙質: 楮紙. 板首題: 보이지 않음. -再雕本: '60권 화엄경', 湯, 坐, 朝, 問, 道(제104-108합). -初雕本: '50권 화엄경', 湯, [坐, 朝, 問, 道](제104-108합 추정).
- 10-2)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二.⁵³⁾ 譯者事項: 唐 實叉難陀 譯. [80권 화엄경]. 函名: 垂(제109합). 形態: 卷子本. 張數: 21張.⁵⁴⁾ 紙質: 楮紙. 板首題: 보이지 않음. 再雕本: '周經 第二 第三幅'.⁵⁵⁾ -再雕本: 80권.

40)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132-140.

41) 2種 이상의 닥종이를 사용

42)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141-150.

43)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151-159.

44) 厚白楮紙를 비롯하여 3種 이상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45)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160-167.

46)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168-175.

47) 紙質은 2種 이상으로, 도침이 잘린 薄楮紙가 쓰임.

48)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176-183.

49)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184-192.

50) 15張의 紙質을 살펴보면 3種 이상의 紙質이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1)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193-199.

52)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200-208.

53)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209-216.

54) 第21張의 후미 이후가 脫落되어 있다.

55) 그리고 구성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第2卷은 再雕本에서는 (周本) 80華嚴經 第2卷의 1張 1행부터 19張 1행까지로 구성의 변화가 나타난다.

- 垂-首(109-116함의 8함). -初雕本: 80권, 垂-首(109-116함의 8함).
- 10-3)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⁵⁶⁾ 譯者事項: 東晉 佛陁跋陀羅 譯.[50권 화엄경]. 函名: [湯(제104함)]. 形態: 卷子本. 張數: 27張.⁵⁷⁾ 紙質: 楮紙. 板首題: 보이지 않음. 再雕本: '晉經 第十 第二十二幅 湯' -再雕本: '60권 화엄경', 湯,坐,朝,問,道(제104-108함). -初雕本: '50권 화엄경', 湯,[坐,朝,問,道](제104-108함의 5함 중 제1함).
- 10-4)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二十六.⁵⁸⁾ 譯者事項: 唐 實叉難陀 譯. [80권 화엄경] 函名: 平(제111함). 形態: 卷子本. 張數: 24張. 紙質: 楮紙. 板首題: 보이지 않음. 再雕本: '周經 第三十二 第十幅 平'. -再雕本: 80권, 垂,拱,平,-首(109-116함의 8함 중 제3함). -初雕本: 80권, 垂-平-首(109-116함의 8함 중 제3함).
- 10-5)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三十二.⁵⁹⁾ 譯者事項: 唐 實叉難陀 譯. [80권 화엄경] 函名: 章(제112함). 形態: 卷子本. 張數: 24張. 紙質: 楮紙. 板首題: 보이지 않음. 再雕本: '周經 第二十六 第十四幅 章'. -再雕本: 80권, 垂,拱,平,章-首(109-116함의 8함 중 제4함). -初雕本: 80권, 垂-章-首(109-116함의 8함 중 제4함).
- 10-6)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三十七.⁶⁰⁾ 譯者事項: 東晉 佛陁跋陀羅 譯. [50권 화엄경]. 函名: 問(제107함).⁶¹⁾ 形態: 卷子本. 張數: 28張[25張⁶²⁾]. 紙質: 楮紙. 行字數: 25行 14字 (間混 15字). 板首題: 보이지 않음. 再雕本: '晉經 第三十七 第十九幅 問'.⁶³⁾
- 10-7)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七.⁶⁴⁾ 入法界品之一. 譯者事項: 東晉 佛陁跋陀羅 譯. [50권 화엄경]. 函名: 道(제108함). 形態: 卷子本. 張數: 29張. 紙質: 楮紙. 行字數: 25行 14字 (間混 15字). 板首題: 보이지 않음. 再雕本: ['60권 화엄경', 권제47: 入法界品三十四之四, 第二十五幅, 問'.⁶⁵⁾
- 10-8)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八.⁶⁶⁾ 入法界品之十二. 譯者事項: 東晉 佛陁跋陀羅 譯. [50권 화엄경]. 函名: 道(제108함). 形態: 卷子本. 張數: 37張. 紙質: 楮紙. 板首題: 보이지 않음. 再雕本: [60권 화엄경, 권제 48: 入法界品第三 十四之三之五, 問].
- 10-9)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七十五.⁶⁷⁾ 譯者事項: 唐 實叉難陀 譯. [80권 화엄경]. 函名: 首(제116함). 形態: 卷子本. 張數: 31張. 紙質: 楮紙. 板首題: 보이지 않음. 再雕本: '周經第七十五 二十四幅 首'.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에는, <도 1>에서 제시한 바에서, 첫째로 대승경율론類 중 대승경綱의 중단함역目中에서 반야부細目の 「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481권 (일련번호 8)의 1권이 보인다. 열반부細目の 「대반열반경」 권제37 및 38(9-1, 9-2)의 2권이 있다. 화엄부細目の 「대방광불화엄경」 권제1, 권제2, 권제10, 권제26, 권제32, 권제37, 권제47, 권제48,

56)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217-226.

57) 위 영인본에서 제1張의 탈락 부분은 재조본에서 복사된 것으로, 「초조본 화엄경」의 제10권은 사실상 26張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58)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227-235.

59)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236-241.

60)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242-251.

61) 영인본의 卷頭 제1장부터 3장까지는 재조본의 복사본이므로 그 函次에 의심이 감

62) 영인본의 卷頭 제1장부터 3장까지는 재조본의 복사본

63) 그 구성을 살펴보면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第37卷은, 再雕本에는 「晉本 60華嚴經」 第44卷 1張 1行부터 第45卷 4張 19行까지로 구성의 변화가 있다.

64)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252-261.

65) 그 구성을 살펴보면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第37卷은, 再雕本에는 「晉本 60華嚴經」 第44卷 1張 1行부터 第45卷 4張 19行까지로 구성의 변화가 있다.

66)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262-274.

67)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p.275-285.

권제75(10-1부터 10-9)의 9권 등 도합 3종 12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승론綱 중 석경론
目に 속하는 「금강반야론」, 卷下(7) 1종 1권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도 1>에 제시한 바와 같은, 소승경율론類의 소승율綱과 관련한 「근본살바다부울섭」 권
제1과 권제11(일련번호 4-1, 4-2)의 2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권제49(5)의 1권, 「근본설일체
유부비나야잡사」 권제23과 권제33(6-1, 6-1)의 2권 등 도합 3종 5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도 1>에서 제시한, 성현집전類 중 중국찬술綱에 속하는 「개원석교록」 권제8(일련번호
1), 「경율이상」 권제6(2), 「광홍명집」 권제21 등 3종이 보이고 있다.

이제 위의 내용을 각 類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승경율론類의 불전

본 절에서는 <표 1>에서 나타나는 초조본 대승경 및 대승론 綱의 불전에 대한 분류체계 및 그
함차순 편입(入藏)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 아울러 재조대장경의 그것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가. 대승경綱 중단합역目的 경전

(1) 반야부細目的 경전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장목록」에서는 모든 대승불교 교리의 저변을 이룸으로써 그 기본사상이
라고 할 수 있는 반야부의 경전군들이 그 첫 번째의 세목으로 안배되고 있다.⁶⁸⁾ <표 1>의 8)에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⁶⁹⁾ 권제481이 제49함인 「劔(검)」함에 배치되어 있다. 총권수가 600권
이나 되는 「대반야바라밀다경」 중 권제481이 제49함에 입장시킴으로써, 초조대장경은 1함에 평균
10권씩 안배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재조대장경에서도 이 경권 역시 동일한
함차명인 「검」함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⁰⁾ 따라서 「대반야바라밀다경」은 초조본과 재
조본에서 일단 동일한 권수는 동일한 함차로 전개·편입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재
조대장경의 반야부는 초조대장경의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68) 이는 「대장목록」의 基幹이라 할 수 있는 「개원석교록약출」(「개원석교록」의 有譯有本錄)에서 대승불교의 교리
를 설명한 菩薩三藏錄인 대승경율론類 중 대승경綱에서 이 반야부 경전이야말로 대승불교를 으뜸으로 대표하는
경전군에 속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69)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본(660-663 번역)은 반야부의 여러 경전 및 사상들을 집대성한 총서로, 대승불교 최대
의 경전이라 할 수 있다. 당시까지 번역된 經典과 현장(玄奘)이 새롭게 번역한 경전들을 총체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전체의 구성은 제16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전이 설해진 장소를 중심으로 다시 4處로 분류하기도 한다.
반야사상은 아함경의 緣起說을 계승 발전한 것으로서, 대승불교의 시작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후 대승불교의
기반이 된다.

70) 「고려대장경」 제48책(총목록), p.48.

(2) 화엄부 세목의 경전

「대장목록」의 화엄부 세목에는 아래에서 논술될 3종의 「화엄경」⁷¹⁾을 비롯하여 화엄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보현행(普賢行) 관련 경전 및 「십주경」·「라마가경」 등 26부(種)의 경전들을 입장하고 있다.⁷²⁾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조대장경 내에는 3종의 「화엄경」이 입장되고 있다. 즉,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⁷³⁾가 번역(418-420)한 「瞿本 화엄경(60권): 이하 「60권 화엄경」이라 약칭함)이 「湯(탕)함부터 「道(도)함까지(제104-108함)의 5함에 배치⁷⁴⁾되어 있다. 그리고 연이어서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695-699)한 「周本 화엄경(80권): 이하 「80권 화엄경」이라 약칭함)은 「垂(수)함부터 「首(수)함까지(제109-116함)의 8함에 입장⁷⁵⁾되고 있다. 또한 반야금강(般若金剛)이 번역(795-798)한 이른바 「40권 화엄경」⁷⁶⁾이 「策(책)함부터 「實(실)함까지(제521-524함)의 4함에 입장⁷⁷⁾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3종의 화엄경 중 〈표 1〉에 나타나는 초조본의 「화엄경」에서 번역자별로 구분하여 각 권의 화엄경이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를 파악하여 볼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화엄부細目の 경전으로는 「대방광불화엄경」 권제1, 권제2, 권제10, 권제26, 권제32, 권제37, 권제47, 권제48, 권제75(일련번호 10-1부터 10-9까지)의 9권이 있다. 이 중 권제1, 권제10, 권제37, 권제47, 권제48의 5권은 5세기초 불타발타라 번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권제2, 권제26, 권제32, 권제75의 4권은 7세기말 실차난타 번역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위 재조대장경에 입장된 불타발타라 번역 「60권 화엄경」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 간경대장경의 호시인 개보칙관대장경(971-983)의 준거목록으로 볼 수

71) 「대방광불화엄경(약칭: 화엄경)」은 전체 34품으로 이루어진 大部의 경전이다. 그런 까닭에 어느 한 시점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하나의 품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뒤 별도의 別行經으로 유통되다가 후대에 집대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현재 화엄경의 주요 품에는 그것과 상응하는 支分經들이 존재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화엄경」은 華嚴宗의 所依經典으로서 대승불교의 역사 속에서 널리 읽힌 경전이다. 그 영향은 화엄종의 범위를 넘어서 禪宗에까지 크게 미쳤다.

72) 화엄부의 경전들은, 불타(佛陀: Buddha; 釋迦牟尼)가 미혹을 떨치고 성도(成道) 하였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며, 그 내용은 실로 방대하다. 하지만 「화엄경」 등의 핵심 사상은 '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성기(性起)사상¹⁾과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함'이라는 보현행으로 요약된다.

73) 불타발타라: 異名: 佛馱跋陀羅, 佛度跋陀羅. 梵名: Buddhahadra. 譯名: 覺賢. 359년 북인도 출생, 408년 長安에 도착, 대방광불화엄경 60권 등 13부 125권 漢譯. 429년 71세로 入寂.

74) 고려재조대장경의 更函에 편입되어 있는 「大藏目錄上」에 의하면, 「東晉 天竺三藏 佛馱跋多羅(佛陀跋多羅) 譯」이라 記入하고 있다(『高麗大藏經』 제39권, p.176).

75) 「大藏目錄上」에 의하면, 「唐 于闐國三藏 實叉難陀 譯」이라 기입하고 있다(『高麗大藏經』 제39권, p.176)

76) 이 경의 本名은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다. 주요 내용은 善財童子가 55善知識을 찾아다니며 普賢의 行願을 이들을 說하고 있다. 이 「40권 화엄경」은 「60권 화엄경」이나 「80권 화엄경」의 入法界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完本 화엄경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60권 또는 80권 화엄경의 입법계품을 대비하여 보면 그 내용은 비록 같다고 할지라도 文言이 많이 增廣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77) 『高麗大藏經』 제39책, p.208.

있는 「개원석교록약출」에는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이른바 「50권 화엄경」이 5개함에 입장⁷⁸⁾되고 있으나, 재조대장경 및 그 목록인 「대장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이른바 「60권 화엄경」을 입장함으로써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장목록」에서는 「60권 화엄경」을 6개함으로 입장하지 않고 굳이 5개함(「湯(탕)」함부터 「道(도)」함까지(제104-108함)의 5함)으로 강제적으로 입장시키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개원석교록약출」이나 「대장목록」에서는 대질(大帙)의 경전은 반드시 10권을 한 단위로 하여 각각의 함에 입장시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위의 「60권 화엄경」에서만 유독 그 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⁹⁾

류부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⁸⁰⁾ 「50권 화엄경」⁸¹⁾의 존재는 「出三藏記集(421)」⁸²⁾에서 처음으로 기입(記入)된 이래, 「歷代三寶紀(597)」와 「大唐內典錄(664)」 등에서 「50권 화엄경」을 「正本(定本)」으로 기입하였고, 「60권 화엄경」은 「或本」으로 간주한 바 있다.⁸³⁾ 그러나 「衆經目錄(564)」 등에서는 「60권 화엄경」을 정본으로 본 경우도 있다.⁸⁴⁾ 그러다가 「開元釋教錄(730)」에 와서야 「晉本 화엄경」의 그 처음 번역(初出)은 50권으로 번역되었고, 후세의 사람들(後人)이 60권으로 나누었음(分爲)⁸⁵⁾을 기입하고 있다.⁸⁶⁾ 따라서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화엄경」은 번역(420) 당시에는 50권본이었으나 6세기 중기에 들어와서 「60권 화엄경」이 등장하였음을 파악할 수

78) 「開元釋教錄略出」, 卷第一, 『大正新脩大藏經』, 第55卷, p.725.

79) 각주 24)의 주문 참조 요.

80) 류부현, “晉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28집(2004. 9.), pp.182-186.

81) 「50권 화엄경」은 東晉의 沙門(道人)이었던 支法領이 우전국(于闐國)으로부터 들여온 10만 계송의 梵語(胡本) 불전 중 3만6천 계송(得此三萬六千偈)에서 유래하며, 이를 「覺賢」이라고도 칭하여진 「불타발타라」에 의하여 418년부터 421년 사이에 번역되었다.

82) 「出三藏記集」(梁 僧祐(444~518)撰): 出三藏記集錄 上卷 第二新集經論錄第一: “大方廣佛華嚴經五十卷 - 沙門支法領於于闐國得此經胡本 到晉義熙十四年(418)三月十日於道場寺譯出 至宋永初二年(421)十二月二十八日都訖”(『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296.)

83) ① 「歷代三寶紀」 {隋 開皇 17(597)年 費長房 撰}. “華嚴經五十卷 - 義熙十四年(418)於道場寺出 至宋永初二年(421)方訖 或六十卷 見竺道祖晉世雜錄”(『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532.).

② 「大唐內典錄」 {唐 麟德1(664)年 道宣 撰}. 大唐內典錄卷第三 歷代衆經傳譯所從錄一之三 東晉朝傳佛經錄卷第五: “華嚴經五十卷 - 義熙十四年(418)於道場寺出 至宋永初二年(421)方訖 或六十卷 見竺道祖晉世雜錄”(『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684.).

84) 「衆經目錄」, 七卷本 {隋 開皇 14(564)年 法經 等 撰}. “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 - 晉義熙十四年(418)沙門佛陁跋陀羅等共法業等揚州譯”(『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434.)

85) 「開元釋教錄」 {唐 開元18(730)年 智昇 撰}. 開元釋教錄 卷第三 總括群經錄上之三: “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 - 初出元五十卷此 後人分爲六十 沙門支法領從于闐國得梵本來 義熙十四年(418)三月十日於道場寺出 元熙二年(420)六月十日訖 法業筆受 見祖祐二錄”(『高麗再雕大藏經』, 제47책, p.1005.)

86) 이상의 여러 불전목록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위 「50권 화엄경」은 東晉의 沙門이었던 支法領(支法領)이 우전국(于闐國)으로부터 들여온 10만 계송의 梵語(胡本) 불전 중 3만6천 계송(得此三萬六千偈)에서 유래하며, 이를 「覺賢」이라고도 칭하여진 「불타발타라」에 의하여 418년부터 421년 사이에 번역되었고, 그 최초의 번역(初譯: 初出) 당시에는 50권이었으나 後人들이 60권으로 分卷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一說에는, 「唐의 法藏이 680년에 日照(天竺三藏 地婆訶羅)가 가지고 온 梵本에 의해서 「50권 화엄경」의 결락 부분을 보완하여 「60권 화엄경」이 유통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法經의 「衆經目錄」(564) 등에서 이미 「60권 화엄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680년 이전에 이미 「60권 화엄경」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있다.

한편, 「개원석교록약출」에서는 대장경의 입장을 위한 합차명(函次名)이 매겨져 있고 또한 개보 칙판대장경의 입장목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개원석교록약출」에서 이들 「화엄경」의 입장 사항을 살펴보면, 「50권 화엄경」은 ‘坐(수: 제105함)-垂(수: 제109함)’함의 5개함에 입장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⁸⁷⁾ 그리고 실차난타가 7세기말에 번역한 「80권 화엄경」⁸⁸⁾은 ‘拱(공)-臣(신)’(제110-117함)함의 8개함에 각각 입장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⁸⁹⁾

이제 〈호림박물관〉 소장의 「화엄경」 권제1(〈도 2〉 참조), 10, 37, 47, 48의 4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2〉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대장경 중 「대방광불화엄경」 권제1⁹⁰⁾

첫째, 〈표 1〉의 10-1) 「화엄경」 권제1의 경우, 권두서명(卷頭書名) 아래에 ‘湯(탕)’이라 기입되어 초조대장경의 탕함(제104함)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東晉 天竺三藏 佛馱跋(陀)羅譯’이라고 역자명이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 권제1의 분량은, 재조대장경의 「60권 화엄경」

87) 智昇, 『開元釋教錄略出』 第一, 『大正新脩大藏經』 제55권 目錄部全, p.725.

88) 智昇, 『開元釋教錄』 卷第九, 『大正新脩大藏經』 제55권 目錄部全, p.565 下.

89) 智昇, 『開元釋教錄略出』 第一, 『大正新脩大藏經』 제55권 目錄部全, pp.725-726.

90) 출처: 「고려초조대장경집성」 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200.

권제1과 비교하여 볼 때 그 후미 부분에서 75행(行)이 더 전개되고 있다.⁹¹⁾ 즉, '25行 14字'가 1張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조대장경 「50권 화엄경」의 분량은 「60권 화엄경」보다 초조대장경의 장수(張數)로 볼 때 3장이나 더 긴 셈이다.⁹²⁾

이승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그는 위 「50권 화엄경」 권제1의 시말(始末) 구성과 동일한 돈황본(敦煌本)의 「사경(寫經) 「화엄경」 권제1」이 중국 〈북경대학교〉의 소장본⁹³⁾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⁹⁴⁾ 이는 사경 「50권 화엄경」의 체제가 그대로 간경(刊經) 「50권 화엄경」으로 변화·입장되었음을 방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화엄경」 권제1은 「50권 화엄경」임이 분명함을 증명할 수 있다.

둘째, 〈표 1〉 10-3) 「화엄경」 권제10의 경우, 권제10의 시작부분이 탈락되고 없어서 재조대장경의 「60권 화엄경」으로 보완한 부분이 영인본의 제1장(張)으로 위치하고 있다.⁹⁵⁾ 그러나 권제10의 탈락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27장(張)이 존재함으로써, 그 내용은 재조대장경 「60권 화엄경」의 권제11의 약 5장 및 권제12의 전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⁶⁾ 이로 보아 재조대장경인 「60권 화엄경」의 권제11의 후반부와 권제12의 내용 전체가 초조대장경 「50권 화엄경」 권제10에 수록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위 「화엄경」 권제10은 〈표 1〉의 10-1)에 나타나는 「화엄경」 권제1과 함께 초조대장경의 제104함인 「湯」함에 배치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⁹⁷⁾ 따라서 이 「화엄경」 권제10 또한 「50권 화엄경」 임에 틀림없다.

셋째, 〈표 1〉 10-6) 「대방광불화엄경」 권제37의 경우, 그 시작부분이 탈락되고 없으나⁹⁸⁾ 이 경 권제37의 25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 25장의 내용 및 권미제를 볼 때, 이 권(卷)의 내용은 「60권 화엄경」 34품(品) 중 제34품인 입법계품⁹⁹⁾의 시작부분인 「入法界品之1」이 배치되고 있음을 확인

91) ① (호림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一」, 「高麗初雕大藏經集成1」(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200-208.

②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一」, 「高麗大藏經」, 第八卷(서울: 東國大學校, 1958), 1-7.

92)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一」, 「大正新脩大藏經」, 第9卷(東京: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1970), pp.395-400과 비교 요

93)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一」, (北 001號) 「敦煌寶藏」, 제56권(서울: 驪江出版社, 1987), pp.1-9上.

94) 이승재, 「50卷本 華嚴經 研究」, 서울대학교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미간행본) (과제명: 初雕大藏經에 編入된 50卷本 華嚴經의 비밀. 과제번호: 서울대학교-100-20040044. 지원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기금. 지원기간: 2004.7.1.-2005.6.30.), p.11.

95) 영인본의 217쪽 「화엄경」 권제10의 시작부분에는 「湯」함에 배치되면서 「功德華聚菩薩十行品第十七之二」의 본문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이 「50권 화엄경」 권제10의 卷頭에 기록되는 소제목 및 그 내용상의 시작부분이 어디서부터 전개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96) ① 「호림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 「高麗初雕大藏經集成1」(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p.226.

②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二」, 「高麗大藏經」, 第8卷(서울: 東國大學校, 1958), p.88 中.

97) 왜냐하면 「50권 화엄경」의 권제1부터 권제10까지가 초조대장경의 제104함인 「湯」함에 배치되고, 나머지 40권이 제105함인 坐함에서 제108함인 道함까지 배치되어야 제104함부터 제108함까지의 5함에 「50권 화엄경」이 안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초조대장경의 「80권 화엄경」의 시작 부분인 권제1부터 권제10까지가 제109함인 垂함에 배치될 수 있다. 실제로 〈표 1〉의 10-2)인 「80권 화엄경」의 권제2가 垂함(제109함)에 배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8) 이를 아래 본문에서 나타나는 「入法界品之一」로 본다면, 그 탈락부분은 초조대장경 「50권 화엄경」의 분량으로 환산하면 3張 정도 되는 내용의 분량이라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60권 화엄경」의 권제37에서는 ‘이세간품제33지2(離世間品第33之2)’가 수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60권 화엄경」이 아님이 확인된다. 그리하여 이 권제37은 곧 「50권 화엄경」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초조대장경에서 「50권 화엄경」은 제104함에서 108함의 5함에 배치되는 초조대장경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그 네 번째 함인 ‘問’함(제107함)에 배치되어야 할 당 위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표 1〉 10-7) 「대방광불화엄경」 권제47의 경우, ‘道’함(제108함)에 배치되면서 ‘立法界品之11’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재조대장경의 「60권 화엄경」 제47권은 ‘立法界品34之4’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⁰⁾ 따라서 이 「화엄경」 권제47 또한 「50권 화엄경」임이 분명하다.

다섯째, 〈표 1〉 10-8) 「대방광불화엄경」 권제48의 경우, ‘道’함(제108함)에 배치되면서 ‘立法界品之12’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재조대장경 「60권 화엄경」의 제48권은 ‘立法界品34之5’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¹⁾ 따라서 이 「화엄경」 권제48 또한 「50권 화엄경」임에 틀림이 없다.

요컨대, 〈호림박물관〉 소장의 불타발타라 번역 「대방광불화엄경」 권제1, 10, 37, 47, 48’의 5권은 모두 「50권 화엄경」에 속하는 경전임을 파악할 수 있다.¹⁰²⁾ 그리하여 초조대장경에서는 이 「50권 화엄경」이 ‘湯-道’함(제104-108함)의 5개함에 정식으로 입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재조대장경의 편성·조조 시에 위의 제104함부터 제108함인 ‘탕-도’함의 5개함에서 「50권 화엄경」을 빼고, 그 대치(代置) 경전으로 「60권 화엄경」을 채택하면서 그 60권의 분량을 각 함에 12권씩 분권(分卷)하여 위의 5개함 자리에 6개함의 분량을 강제적으로 입장하였음을 확신할 수 있다.¹⁰³⁾ 왜냐하면, 「개원석교록약출」이나 「대장목록」에서는 「대반야바라밀다경」 등 수십권 내지 수백권에 달하는 대질(大帙)의 경전을 대장경의 함차로 입장할 때에는 반드시 10권씩 나누어 독립된 단위의 1개함에 입장시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⁴⁾

99) 이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비롯한 53선지식을 순방하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 법계(法界: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감을 극적으로 묘사한 품이다.

100) ① “호림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七,” 『高麗初雕大藏經集成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252.

②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七,” 『大正新脩大藏經』 第9卷 (東京: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1970), 695.

101) ① “호림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八,” 『高麗初雕大藏經集成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262.

②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八,” 『大正新脩大藏經』 第9卷 (東京: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1970), 702.

102) 근자에 이승재 교수는, 위 〈호림박물관〉 소장본 중에서 「화엄경」 권제1, 권제37, 권제47, 권제48의 4권은 「50권 본 화엄경」임(이승재, “50卷本 華嚴經 研究,” 『서울대학교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pp.9-16.)임을 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필자는 ‘위 〈표 1〉의 「화엄경」 중 ‘권제1, 권제10, 권제47, 권제48의 4권은 「50권 화엄경」임’(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의 연구과제,” pp.49-53.)을 이미 考究한 바 있다.

103) 『大藏目錄』, 『高麗大藏經』 제39책, p.176中 참조 요.

104) 이는 「대장목록」에서 첫 번째로 입장되는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은 제1함(天)에서 제60함(奈(내))까지의 60개함에 안배하고 있으며, 「80권 화엄경」 또한 제109함부터 제116함까지인 ‘垂(수)-首(수)함의 8개함에 안배하고 있음을 보아도 자명(自明)하다.

다음으로, 위 <표 1>에서 실차난타의 번역인 이른바 「80권 화엄경」¹⁰⁵⁾의 권제2, 권제26, 권제32, 권제75의 4권에 대하여 논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표 1> 10-2) 「화엄경」 권제2'의 경우, 이를 재조대장경의 「80권 화엄경」의 내용과 대조하여 보면,¹⁰⁶⁾ 이 초조본은 그 말미 계송(偈頌)의 5행 및 권미제가 탈락된 상태이고, 동일한 함차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판각상의 차이 이외에는 그 나머지는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표 1> 10-4) 「화엄경」 권제26'의 경우, 이를 재조대장경의 「80권 화엄경」의 내용과 대조하여 보면,¹⁰⁷⁾ 동일한 함차명 및 그 전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표 1> 10-5) 「화엄경」 권제32'의 경우, 이를 재조대장경의 「80권 화엄경」의 내용과 대조하여 보면,¹⁰⁸⁾ 초조본의 영인본에는 권두제(卷頭題) 및 함차명 그리고 번역자 사항과 권두 본문 19행이 탈락된 1張을 재조본에 의하여 복원한 것¹⁰⁹⁾ 이외에는 재조본과 그 전개가 대동소이하므로, 초조본 역시 같은 함차명('章'합: 제112합) 배치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표 1> 10-9) 「화엄경」 권제75'의 경우, 이를 재조대장경의 「80권 화엄경」의 내용과 대조하여 보면,¹¹⁰⁾ 그 함차명이 '首'합(제116합)으로 서로 동일하고, 그 내용 또한 '입법계품 제39之16'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으로 초조대장경 「80권 화엄경」의 권제2, 권제26, 권제32, 권제75의 4권에 대한 입장 상황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초조대장경에서 「50권 화엄경」과 「80권 화엄경」을 나란히 입장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초조대장경이 「개원석교록약출」의 체제에 입각하여 입장되었음을 파악하게 하여주는 중요한 단서(端緒)를 내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¹¹¹⁾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각 불전의 권수 이동(異同) 및 내용상의 전개와 그 차이의 문제는 초조대장경의 실제 조사과정에서 그 정확한 권수 및 함차명 등을 파악하여야 비로소 향후 초조대장경의 불전목록을 올바르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조대장경 실물(實物) 조사과정의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중요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05) 同名의 異譯本인 「60권 화엄경」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전체 내용이 7처 9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60권 화엄경」의 제6회가 「80권 화엄경」에서는 제6회와 제7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80권 화엄경」의 제6회에 해당되는 것은 十地品이며, 제27 十定品에서 제37 如來出現品까지가 제7회에 해당한다. 둘째, 「60권 화엄경」의 제2 노사나불품이 「80권 화엄경」에서는 如來現相品, 普賢三昧品, 世界成就品, 華藏世界品, 毘盧遮那品 등 다섯 품으로 세분되어 있다. 셋째, 「60권 화엄경」에는 없는 십정품이 새롭게 부가되어 있다. 이 십정품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닦아야 하는 열 가지 선정을 설하고 있다.

106)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二,” 『高麗大藏經』 제8책, pp.430下-436下.

107)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二十二,” 『高麗大藏經』 제8책, pp.583下-589下.

108)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三十二,” 『高麗大藏經』 제8책, pp.623下-628上.

109)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三十二,” 『高麗初雕大藏經集成 1』, p.236上.

110)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七,十五,” 『高麗大藏經』 제8책, pp.899중-907上.

111) 왜냐하면, 재조대장경에서는 「60권 화엄경」과 「80권 화엄경」이 나란히 입장되고 있음으로써, 守其가 재조대장경 조조를 위한 교감 및 재편성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3) 열반부 세목의 경전

불교경전 중에서 분다(佛陀)의 입멸을 다루고 있는 경전들을 열반¹¹²⁾경류라고 한다. 특히 대승 불교에서 열반은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끄고 깨달음인 보리를 완성한 경지’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대장목록 등에서는 「대반니원경」과 「대반열반경」¹¹³⁾ 등이 대표적인 열반부의 경전으로 주목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열반부 세목의 경전으로 〈표 1〉의 9-1) 및 9-2)에 ‘대반열반경」 권제37 및 권제38’이 함께 보이고 있다. 이들 경권들은 초조본과 재조본에서 공히 제214합인 ‘體(체)’함에 나란하고 동일하게 입장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열반부 세목의 경전 중 「대반열반경」에 관한 한, 재조대장경에서는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 및 합차명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대승론綱의 석경론目的 불서

〈표 1〉의 7)에 초조본 ‘「금강반야론」 권하」¹¹⁴⁾가 보인다. 〈표 1〉에 의하면,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대한 주석서인 이 책은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에서 공히 제219합인 ‘傳(전)’함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경론目的 분류체계 및 합차순의 입장은 초조와 재조에서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소승경율론類 소승율綱의 불전

본 절에서는 〈표 1〉에서 소승경율론類 중에서 소승율綱에 포함되는 불전에 대하여, 이들 불전이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 및 그 합차순 입장에서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재조대장경의 그것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1〉에서 소승율綱에 포함되는 불전으로는, 「근본살바다부울섭」 권제1 및 권제11(일련번호 4-1, 4-2)의 2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권제49(5)의 1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권제23과 권제33(6-1, 6-1)의 2권 등 도합 3종 5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들의 내용 및 그 분석을

112) 涅槃은 산스크리트어 nirvana(니르바나)의 音譯으로, 滅·寂滅·滅度·寂 등으로 번역한다.

113) 「大般涅槃經」 40권본은 421년에 北涼의 담무참이 번역한 것으로 ‘北本 涅槃經’이라고도 한다. 석가모니의 涅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如來의 法身은 상주불변하는 것이며, 일체 모든 중생이 다 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대승사상의 정수가 들어 있는 경으로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특히 대승 5대 부문으로 꼽히는 華嚴部, 方等部, 般若部, 法華部, 涅槃部 중에서 열반부를 대표하는 경전이 바로 ‘북본 열반경’이다. 전체 구성은 13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승이든 소승이든 현존하는 여러 열반경류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고 내용상으로도 가장 완비된 것으로 평가받는 열반경이 바로 ‘40권본 대반열반경’이다.

114) 「金剛般若論」은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의 약칭으로, 隨 達磨笈다가 번역한 2권본 중 제2권(下)권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대한 註釋書이다. 이 논서에는 「金剛般若波羅密經論」이라는 別行本이 있는데, 이는 3권본으로서 宋·元·明 본에 실려 있는 것이다. 이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을 世親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론」, 3권본과 혼동하면 안 된다.

각각 시도하면 아래와 같다.

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권제49

〈표 1〉의 5)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¹¹⁵⁾ 권제49'가 보인다. 이 책은 '근본설일체유부'(派)의 비구계 249조에 대해서 그 인연광해(因緣廣解)를 집대성한 광률(廣律)로, 「대장목록」에서 소승 율의 대표적인 불전이며 이 책의 근간(根幹)이 되는 「십송율 61권」(제309-314합)과 인접한 제 315-319합(甘-益)에 그 50권이 5개함에 나누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 권제49' 또한 초조대장경의 제319합인 '益'함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재조대장경과 초조대장경에서 이 불전은 동일한 분류체계에 의한 동일한 함차명으로 입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권제23 및 권제33

〈표 1〉의 6-1) 및 6-2)에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¹¹⁶⁾ 권제23 및 권제33'이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장목록」 및 「개원석교록약출」에서는 동일주제군 아래에서 동일번역자의 불서들을 한 곳에 모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장목록」에서는 위의 책 또한 「십송율」의 계열이면서 동시에 의정(義淨)이 번역한 '근본설일체유부' 계통의 불서군(群)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달리하는 「오분율」(제327-329합)의 계통 앞에 배치됨으로써, 위의 책 40권이 입장되는 제322-325합 중 권제23은 제324합인 '賤(천)'함에 그리고 권제33은 제325합인 '禮(예)'함에 입장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조본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권제23 및 권제33 또한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대장목록」과 동일한 함차명인 '천'함과 '예'함에 각각 입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설일체유부' 계통의 불전들은 초조와 재조의 입장(入藏)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근본살바다부울섭」 권제1 및 권제11

〈표 1〉의 4-1) 및 4-2)에 보이는 「근본살바다부울섭」¹¹⁷⁾은 모두 14권으로 구성된 책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의 권제1은 '奉(봉)'함(제342합)에 그리고 권제11은 '母(모)'함(제343합)에 각각 입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장목록」에서도 이 「근본살바다부울섭 14권」은

115)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는 소승 부파의 하나인 근본설일체유부의 比丘 계율로서 총 249조목을 담고 있다. 계율 전체를 8개 부류로 나누고 갖가지 계율 조목에 따라 그 제정 인연 및 세칙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본 律藏의 내용은 설일체유부의 廣律인 十誦律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십송율과 구분하여 본 율장을 '신살바다부울(新薩婆多部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16)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는 다른 여러 율장의 雜建度에 해당하며, 근본설일체유부의 廣律 중 17事의 하나이다. 석가모니가 열반한 뒤에 이루어진 500結集과 700결집 등 경전 편찬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117) 根本薩婆多部律攝은 小乘 부파의 하나인 根本說一切有部 즉 근본살바다부의 戒律藏을 모으고 해석한 것이다. 義淨이 인도로부터 귀국한 뒤 가장 먼저 번역한 것이다.

14권임에도 불구하고 '奉-母'함인 2함에 독립적으로 입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⁸⁾ 그렇다면 제343함인 '모'함에는 단 4권의 불전만이 입장된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감안하면,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대장목록」은 초조대장경의 체계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¹¹⁹⁾

이상의 초조본 소승경율론類 소승綱의 여러 불전들의 입장 상황은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대장목록」의 동일사항들과 그 함차명들이 각각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초조대장목록」의 분류체계 또한 동일할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 성현집전類 중국찬술綱의 불전

본 절에서는 〈표 1〉에서 성현집전類 중에서 중국찬술綱에 포함되는 불전에 대하여, 이들 불전이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 및 그 함차순 입장에서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재조대장경의 그것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1〉에서 중국찬술綱에 포함되는 불전으로는, 「개원석교록」 권제8(일련번호 1), 「경율이상」 권제6(일련번호 2) 및 「광흥명집」 권제11(일련번호 3)의 도합 3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들의 내용 및 그 분석을 각각 시도하면 아래와 같다.

가. 「개원석교록」 권제8

〈표 1〉의 1)에 「개원석교록」 권제8¹²⁰⁾은 총 20권으로 구성된 가장 모범적인 불전목록임과 동시에 간경(刊經)대장경의 표준적인 입장목록으로서, 초조대장경의 제457함인 '陞(승)'함에 입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전은 「대장목록」에서도 또한 동일한 함차명으로 입장되고 있음¹²¹⁾을 확인할 수 있다.

118) 「大藏目錄」, 『高麗大藏經』 제39책, p.198中.

119) 왜냐하면, 「개원석교록약출」에서는 이 「근본살바다부울섭 14권」이 母·儀(제343-344함)에 입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120) 「開元釋教錄」은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때인 後漢 시대 明帝 永平10(67)년부터 唐 玄宗 開元18년(730)까지 664년 동안에 번역된 大소乘의 經·律·論 3장 등을 정리 수록한 목록이다. 당 시대까지 성립된 「出三藏記集」·「法慶錄」·「歷代三寶紀」·「大唐內典錄」 등의 목록을 비교 검토하면서, 종래의 경록을 비판적으로 집대성함으로써 가장 정연한 조직을 이룬 목록이다. 전체를 總括群經錄(제1권부터 제10권까지)과 別分乘藏錄(제11권부터 제20권까지)으로 나눈다. 총괄군경록은 후한 이후의 역경 사실을 연대별, 역경의 標目, 권수, 년월, 同本異譯의 유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불전의 역자는 모두 176명인데, 이들이 역경한 불전은 모두 2,278부 7,046권이다. 이 부분의 목록은 연대별, 역자별 수록이라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 별분승장록 제11권부터 제18권까지는 별분승장록을 7門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제19권과 제20권은 대장경에 入藏된 불전의 목록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이 경전은 唐 智昇이 번역한 20卷 중 第8卷이다.

121) 「大藏目錄」, 『高麗大藏經』 제39책, p.202下.

나. 「경율이상」 권제6

〈표 1〉의 2)에 「경율이상」 권제6¹²²⁾은 총 20권으로 구성된 율장(律藏)과 여러 경전류 등에서 그 요점만 추려서 편찬한 사전으로, 초조대장경의 제439함인 '仙(선)'함에 입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전은 또한 재조대장경에서도 동일한 함차명으로 입장되고 있음¹²³⁾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광홍명집」 권제21

〈표 1〉의 3)에 「광홍명집」 권제26¹²⁴⁾은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교사(佛敎史) 뿐만 아니라 일반중국사의 자료로도 가치가 인정되는 문헌들을 수록한 불전으로, 초조대장경의 제478함인 '聚(취)'함에 입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전은 또한 재조대장경에서도 동일한 함차명으로 입장되고 있음¹²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초조본 성현집전類 중국찬술綱의 여러 불전들의 입장 상황은 「대장목록」의 동일사항 불전들에 대한 함차명과 동일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장목록」의 제478함인 '聚(취)'함까지의 함차명이 초조본과 동일함으로써, 「대장목록」 즉 재조대장경 제478함까지의 함차명 입장 및 분류 체계는 초조대장경의 그것에 준거(遵據)하였음을 1차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 중 대승경율분類에서부터 성현집전類 중국찬술綱까지의 분류체계는 「대장목록」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V. 결 론

이상의 본론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초조대장경 인본의 특징 및 의의'에서는 초조대장경이 지니고 있는 특징 및 의의에 관한 6개 사항을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판각기법이 정교하고 자체(字體)가 정교한 초조대장경은 비록 그 판본은 소실(消失)되었으나, 현재 한국과 일본에 약 2,450종의 인본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거하여 디지털초조대장경 DB를 구축하여 오늘의 시점에 다시 살려냄(再生)으로써, 11세기 당시와 가장 근접하게 복원하고, 그 목록인 「초조대장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122) 총 50권으로 편찬된 「經律異相」은 여러 경전과 律藏 등에서 요점만 뽑아서 정리한 사전류로서, 516년에 梁나라의 寶唱·僧旻 등이 편찬한 책이다.

123) 「大藏目錄」, 『高麗大藏經』 제39책, p.202上.

124) 「廣弘明集」은 「弘明集」의 속편으로서 편찬된 논집이지만, 기본적으로 護敎的인 입장을 띠고 있는 문헌들을 모아 놓은 「홍명집」과는 달리, 불교 이외의 문헌들까지도 폭 넓게 수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125) 「大藏目錄」, 『高麗大藏經』 제39책, p.203中(중).

둘째, 제3장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에서는 재조대장경목록인 「대장목록」에 기반하여, 초조대장경의 목록인 「초조대장목록」의 작성 및 복원을 위한 전제단계로써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를 잠정적으로 수립하여 보았다. 그 결과,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는, 초조대장경의 전체 불전을 분류함에 있어서 ‘대승경율론’ 등의 4類와, ‘대승경’ 등의 10綱 및 ‘대승경의 중단합역’ 등의 6目, 그리고 ‘반야부’ 등의 6細目으로 분류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그 분류체계는 4類 10綱 6目 6細目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제4장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의 내용 및 분석’에서는, 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초조본 10종 21권에 국한하여 이에 대한 서지사항을 정리하고, 그 내용 및 대장경 입장(入藏)의 합차명(函次名) 조사 및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에 대한 타당성 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초조본 대승경율론類 반야부細目에서부터 성현집전類 중국찬술綱의 여러 불전들에 이르기까지의 각 불전의 입장 상황은 「대장목록」의 동일사항 불전들에 대한 합차명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장목록」의 제1함인 ‘天(천)’함부터 제478함인 ‘聚(취)’함까지의 합차명이 초조본과 거의 동일함으로써, 「대장목록」 즉 재조대장경 제478함까지의 합차명 입장 및 분류체계는 초조대장경의 그것에 준거(遵據)하였음을 1차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조대장경의 분류체계 중 대승경율론類에서부터 성현집전類 중국찬술綱까지의 분류체계는 「대장목록」의 분류체계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함을 파악하였다.

넷째, 〈호림박물관〉 소장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 번역 「대방광불화엄경」 권제1, 10, 37, 47, 48’의 5권은 모두 「50권 화엄경」에 속하는 경전임을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초조대장경에서는 「50권 화엄경」이 ‘湯(탕)-道(도)’함(제104함-제108함)의 5개함에 정식으로 입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조대장경의 편성 때에는 「50권 화엄경」을 빼고, 그 대치(代置) 경전으로 실차난타(實叉難陀) 번역 「60권 화엄경」을 채택할 때 60권을 5개함에 12권씩 분권(分卷)하여 편입시킴으로써, 위 「50권 화엄경」 5개함 자리에 6개함 분량의 「60권 화엄경」을 강제적으로 입장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참 고 문 헌

- 『開元釋教錄』, 『大正新脩大藏經』 第55卷, 目錄部全. 東京: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昭和52. pp.477-723.
- 『開元釋教錄略出』, 『大正新脩大藏經』 第55卷, 目錄部全. 東京: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昭和52. pp.724-747.
- 『高麗大藏經』,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1976.

『高麗史』.

「大藏目錄」, 『高麗大藏經』 제39책.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1976. pp.174-215.

강순애. “舊大藏目錄 杜函-楚函까지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2집(1996), pp.115-170.

강순애.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1집(1995), pp.75-166.

강순애.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分析을 통해 본 初雕 및 再雕大藏經의 變容에 관한 研究.” 한국비블리아, 제7집(1994), pp.103-146.

고려조조대장경편찬위원회. 『高麗初雕大藏經集成』 1-4.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金聖洙. “「대장목록」과 「축쇄장목록」· 「만자장목록」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창간호(1986), pp.105-128.

金聖洙. “고려 조조대장경의 연구 과제,” 『書誌學研究』 第32輯(2005. 12), pp.35-60.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류부현. “晉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28집(2004. 9.), pp.179-194.

吳龍燮.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研究.” 『書誌學研究』 創刊號(1986), pp.213-250.

李箕永. “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제48. 서울: 東國大學校 譯經院, 1976. pp.1-17.

이승재. “50卷本 華嚴經 研究.” 『서울대학교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과제명: 初雕大藏經에 編入된 50卷本 華嚴經의 비밀. 과제번호: 서울대학교-100-20040044. 지원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기금. 지원기간: 2004.7.1.-2005.6.30.), 미간행본. pp.1-83.

鄭駢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제2집(1987), pp.3-108.

鄭駢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정필모. “高麗四大藏經板의 顛末.” 『書誌學研究』 제10집(1994), pp.31-44.

진현중. 韓 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서울: 들녘, 1997.

千惠鳳. “高麗初雕大藏經.” 高麗大藏經 研究資料集 II. 경남 합천군: 해인사, 2533 (1989), pp.9-24.

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高麗大藏經 研究資料集 II』. 경남 합천군: 해인사, 2533(1989), pp.25-78.

千惠鳳·박상국.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調查研究. 서울: 成保文化財團, 1988.